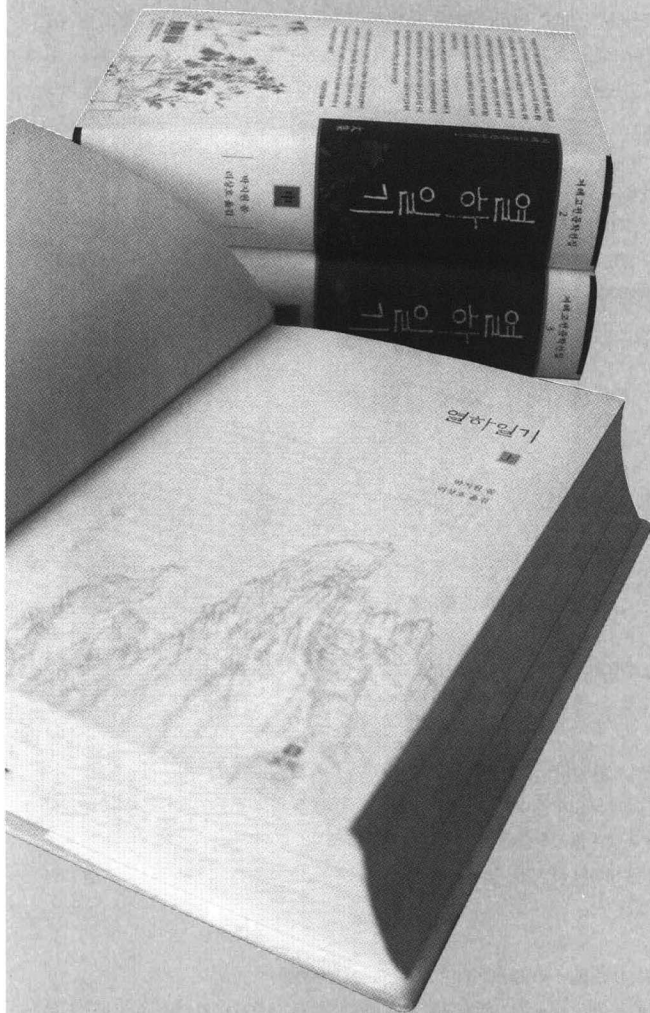


조선지배층들, 연암의 매력이 그저 두려웠으니...

표정훈



《열하일기》(전3권)

박지원 지음 | 리상호 옮김 | 보리 | 각권 630쪽 내외 | 각권 값 25,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패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가(賣文家)'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책은 나만의 운명을 지낸다》《탐서주의자의 책》《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고대문명의 환경사》《진영첩의 주장강의》《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올해로 연암 박지원(朴趾源)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어쩌면 언제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고 그가 남긴 글, 특히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읽고 찬탄해 마지않는다. 열하는 오늘날 중국의 허복성 승덕(承德)으로, 연암 당대에는 청나라 황제들의 피서지였다. 연암은 40대 초반이던 1780년 친척 형님 박명원이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70세 생일) 축하 사절로 파견될 때 개인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압록강을 건넌 6월 24일부터 요동, 성경, 산해관, 북경, 열하를 거쳐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두 달간 보고 겪은 일을 적은 기행문이자 일지가 바로 《열하일기》이다.

그러나 《열하일기》를 기행문이자 일지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다루는 주제만 해도 음악을 얘기한 '망양록', 갖가지 약방문을 적은 '금료소초', 그릇을 비롯한 각종 기물(器物)이나 그림을 얘기한 '골동 이야기', '열상화보' 등이 수록돼 있고, 지동설(地動說)이나 달에 관한 천문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철학, 정치, 경제, 천문, 지리, 풍속, 종교, 건축, 문학, 선박, 의학, 제도, 역사, 고적 등 백과전서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글 형식 혹은 성격에서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필, 논문, 평론, 일기, 대화록, 소설, 감상문 등 무척이나 다채롭다. 청나라 여행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통해 연암의 독자적인 문학과 사상과 정서의 세계가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한 듯 만개(滿開)한 결과가 바로 《열하일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 재물은 풍성풍성하되 한쪽에 몰려 있지를 알고 싶 새 없이 흘러 퍼지고 장사를 통하여 이곳저곳 옮겨지는 것은 모두 수레를 이용하는 탓이다. 그래도 넓이가 수천 리나 되는 나라(조선)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모두가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다. 정말 수레 만드는 법은 어떠한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은 어떠한가? 하는 데는 연구가 없으니 이야말로 건설으로 읽는 풍월뿐이요, 학문이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어허 한심하고도 기막힌 일이다.

수레의 구조와 바퀴를 이용하는 기계들의 구조 및 성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백성들의 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운송수단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철실하게 평가하는 글, '수레 만든 법식(車制)'의 일부다. 연암은 청나라의 문물 가운데 유익한 것을 조선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선의 지배계층이 중시하는 학문이 실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편리한 기구 등을 잘 이용하여 의식주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이른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신이기도 하다.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한문단편소설 〈호질(虎叱)〉(범의 꾸중)은 또 어떤가? 연암은 도학군자언하는 양반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큰 범이 부하들과 저녁거리를 의논하다가 맛 좋은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결정하고 마을로 내려갈 때, 도학자 북곽(北郭) 선생은 열너 표창까지 받은 이웃의 동리지(東里子)라는 청상과부 집에서 그녀와 밀회하고 있었다. 과부에게는 성이 각각 다른 아들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이들은 북곽 선생 같은 도학군자가 저런 수작을 할 리 없다 생각하고,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라 여긴 나머지 몽둥이를 휘두르며 북곽 선생에 달려드니, 북곽 선생은 황급히 도망치다 뚝구렁에 빠졌다.

겨우 기어 나오니 큰 범이 입을 벌리고 있어 머리를 땅에 붙이고 목숨을 비니 범은 북곽 선생의 위선을 크게 꾸짖고 가버렸다. 날이 새어 북곽 선생을 발견한 농부들이 놀라서 연유를 물으니, 엮드려 있던 그는 그때야 범이 가버린 줄을 알고 줄행랑을 쳤다. 연암은 이 〈호질〉을 청나라 옥전현의 어느 점포에 들렀다가 바람벽에 붙어 있는 괴상한 글 한 편을 베껴와 발표한 것이라 했고, 작품의 배경이 중국이며 인용 출처 대부분도 중국 고전이지만, 실제로는 연암의 창작이라는 게 정설이다.

여하튼 왜 베끼려 하느냐는 점포 주인의 질문에 대한 연암의 대답이 결정적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읽혀 그들로 하여금 배를 틀어주고 넘어지도록 웃게 하되, 먹던 밥티가 별 날 듯 튀고 갖끈이 썩은 새끼처럼 끊어지게 될 것이오." 〈호질〉 같은 풍자 소설을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 선뜻 용납했을까? 정조대왕은 《열하일기》를 읽고 선비들이 짓는 글의 문체가 순정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연암에게 묻고자 했다. 정조에게, 아니 당시 지배층에게 《열하일기》는 '우스갯소리로 세상을 놀리고 시중의 잡스런 이야기로 올바른 문장을 망친 책'이었다.

결국 정조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이고 참신

하여 자유분방한 문장을 억압하고 전통적인 문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른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명했다. 물론 연암이 그런 새로운 문장의 유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런 문장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려고 하던 시기가 정조시대였고, 연암은 시쳇말로 '시범케이스'로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연암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명했고, 연암은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 1797년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저명한 선비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과 후학들이 선비가生前에 쓴 글들을 모아 문집을 펴내는 게 보통이었지만, 연암의 문집은 사후 100년이 다 되도록 출간되지 못했다. 연암의 손자 박규수는 우의정 벼슬에 올랐으면서도 할아버지의 문집을 간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1901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되어서야 창강 김택영이 《열하일기》를 비롯한 연암의 글을 모아 《연암집》을 처음 간행했다. 김택영이 간행한 《연암집》은 9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본집(本集)의 일부에 불과했고, 1932년 박영철이 크게 보완하여 17권 6책으로 간행했다. 《열하일기》는 권11~15에 수록) 최근에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암집》을 완역, 출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열하일기》는 3, 4, 5권으로 나올 예정이다.

연암의 깊고 넓은 세계를 몇 마디 말로 규정하는 건 가당치 않겠지만, 연암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앞선 이기(利器)의 도입을 주장하고, 인간의 삶과 떨어진 공허한 학문을 비판했으며, 삶과 세상을 풍자하며 유머를 구사할 줄 알았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독서와 관찰을 통해 철저히 연구하여 그것을 글로 훌륭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렇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연암은 글을 통해서나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매력적인 한 인간'이다. 연암 당대의 지배층은 연암의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모른다. 매력적인 저자와 책을 금지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 '금서에 관한 제1법칙'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칙을 연암과 《열하일기》가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한문**